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신자들 <10> 19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

스케이트 못 타는데 중책, 눈 안 와 대관령서 '시설제' 도

강원 부지사 청탁에 무모한 도전
석 달 여유, 부산영화제 지장 없어

평창·강릉·춘천 3곳서 대회 개최
경기장 등 막바지 공사 기간 빠듯

운영비 30억 아껴 강원도에 증여
동계스포츠 알게 해준 귀중한 체험

1998년 11월 초 임무용 강원 부지사가 전화해 이듬해 1월 개최되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여유를 얻어 문화관광부에 어떤 대회인지 알아보았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로, 강원도지사 출신의 전임 사무총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고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사가 신문·방송에 많이 보도됐고, 특히 10월 말 MBC 프로그램 '성공시대'에 출연했기 때문에 후임 사무총장으로 거론된 것 같았다.

스케이트도 못 타고, 스키는 초보 수준인 주제에 국제 동계스포츠 행사를 맡는다는 게 주저넘기도 했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서 수락했다. 당시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98년 9월 24일~10월 1일)를 마쳐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었고, 석 달 정도라면 영화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11월 9일 오전 11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김용은 조직위원장을 미리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배경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부조직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달 16일 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다음날 오전 10시 김진선 지사를 예방했다.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임명장을 받자마자 우선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KBS·MBC·G1강원방송·CBS 등 지역 신문·방송사를 순방하고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배우 김지수, 홍보위원으로 위촉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86년 3월 1일 일본 삿포로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제2회 대회는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예산과 준비 부족으로 포기해 90년 3월 9일 다시 삿포로에서 개막했다. 3회 대회는 95년 북한 삼지연 개최가 결정됐지만 92년 이를 반납해 96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렸다.

평창(용평)·강릉·춘천의 3개 지역에서 열기로 한 강원 동계아시아대회는 운영에 162억원, 경기 시설에 1493억원, 지원 시설에 89억원, 진입로 정비에 336억원 등 총사업비 2080억원이 들어가는 큰 행사였다. 도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직위원회 직원 71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지원요원 등 1852명이 대회운영 요원으로 일했다.

당시 춘천에선 야외스케이트장이, 강릉에선 실내 빙상경기장이, 용평에선 쇼트트랙과 개막식이 열리는 실내 빙상경기장과 알파인스키장,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각각 막바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었다. 공사장마다 진입로 공사가 한창이었고 선수촌과 프레스 센터, 국제방송센터도 공사 중이었다.

연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11월 19일 속소를 황계로 옮겨 조규영 행사본부장(전 부지사), 하춘용 경기속박본부장, 박무길 기획총무부장, 문대상 운영부장, 남태우 지원부장, 조승기 경기부장, 엄희일 선수준비



1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을 맡은 필자(오른쪽)가 김용은 조직위원장(왼쪽)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무길 기획총무부장(왼쪽 둘째)과 조규영 행사본부장(왼쪽 셋째)이 함께했다. 2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 윤강로 조직위원장 보좌관, 필자, 랜드히트 아시아경기연맹(OCA) 사무총장, 이승원 국제스키연맹집행위원장(왼쪽부터). 3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필자, 명호근 쌍용양회 사장, 성상우 문광부 체육국장, 이태선 쌍용양회 부사장. 4 대회 직전인 1999년 1월 26일 대관령 정사에서 시설제를 지내는 필자. 5 1998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OCA 총회에 참석한 필자(앞줄 오른쪽). <사진 김동호>

장 등 조직위원회 직원과 합숙하면서 일심동체가 됐다. 이명섭·권혁철·이재풍·전창범·서영만·조명구·신장욱·이재균·안래현·한현택·최원대·최건용·이윤식 과장과 많은 직원이 함께 숙식하면서 밤새워 일했다. 감사원에서 최귀수 감사관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선 윤강로 전문위원이 각각 파견됐다.

12월 3일 제13회 아시아경기대회(98년 12월 6일~20일)가 열리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다. 그달 5일의 아시아경기연맹(OCA) 총회에서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개최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 김용은 조직위원장, 김진선 집행위원장과 함께였다. IOC와 OCA의 합동 회의로 이렇게 큰 국제회의의 참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보고 내용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이를 영문으로 작성해 발표했다. 적지 않은 질문이 있었지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1월 귀국한 뒤 용평에서 강릉·춘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병원·공항·군부대 등을 순방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19일에는 강릉실내빙상경기장이, 20일에는 춘천 실외 빙상경기장이 준공되는 등 모든 경기장이 완공됐고, 23일에는 국가대표 친선경기대회가 열렸다.

1월 6일 김용은 조직위원장과 김진선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준비상황 종합보고회의를 열었다. 1월 9일부터는 조직위원회를 현장 운영체제로 전환해

경기대회다'라는 제하에 특집판이 나왔다. 12월 19일의 강릉실내빙상경기장 준공을 앞두고 16일에 강릉기자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17일엔 각 사 체육부장을 초청해 경기장을 안내했다. 오찬 간담회 뒤 용평으로 이동해 각 경기장을 돌아봤다. 그 뒤 신문·방송 보도가 줄을 이었고, 26일 오후 7시 30분엔 KBS '열린 음악회'가 현지에서 열렸다.

1월이 되면서 4일엔 방송드라마 '보고 또 보고'로 인기 상승 중인 배우 김지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송관계자 연석회의(5일), KOC기자단 초청 현장안내(18·19일), 외신기자 오찬(22일)과 각 언론사의 개별인터뷰 등으로 대회 준비상황을 대내외에 알렸다.

1월이 되면서 4일엔 방송드라마 '보고 또 보고'로 인기 상승 중인 배우 김지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송관계자 연석회의(5일), KOC기자단 초청 현장안내(18·19일), 외신기자 오찬(22일)과 각 언론사의 개별인터뷰 등으로 대회 준비상황을 대내외에 알렸다.

1월 27일 오전 11시 중국선수단의 입촌식이 이어, 오후 3시에 한국선수단이 입촌해 대회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전문분야이기도 한 홍보에 치중했다. 당시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98년 12월 6~20일) 때문에 동계아시아대회는 전혀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선 각 언론사 체육부장들을 만났다. 89년 헝가리 순방에 동행했던 동아일보 남달성 기자가 체육부장을 맡고 있었다. 12월 20일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자 12월 21일 자에 '이제는 동계아시아

등 공식행사가 끝났다. 그 뒤 '하늘, 땅, 사람'을 주제로 서울예술단, 강원대 무용단과 정선고 학생들이 출연하는 20분간의 식후 행사가 이어졌다. 그 뒤 7일 동안 21개국 827명의 선수가 겨루는 열린 경기가 펼쳐졌다. 폐막식을 하루 앞둔 2월 5일 저녁에는 춘사영화제 시상식이 열렸고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참석해 열기를 고조시켰다.

드디어 2월 6일 오후 6시 용평실내빙상경기장에서 폐막식이 열렸다. 박명숙이 안무하고 서울예술단과 성산초 학생들이 출연하는 식전행사와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서울예술단과 출연진 전원이 참석한 식후 공연(유유재 안무)을 끝으로 행사가 막을 내렸다. 금상첨화로 1·2회 때는 3위, 3회 때는 4위였던 한국 선수단의 종합 성적이 2위로 올랐다.

대회가 끝난 뒤 청산인으로 선임돼 99년 12월 말까지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운영비를 절감한 30억원의 잉여금을 강원도의 동계스포츠 시설 확충에 사용하라고 증여한 뒤 사후 청산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했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라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운영하고, 동계스포츠를 알게 해 준 귀중한 체험의 기회였다. 대회 기간 나에게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준 조규영·박무길·이명섭·남태우·전창범 등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파견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